

인터넷 중독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 경험*

이화숙** 이영환***

The Experience of Fathers who Have Children with Internet Addiction

Lee, Hwa Sook Yee, Young Hwan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중독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으로 판정받은 아동 10명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는 심층면접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아버지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고 경험한 그들의 주관적인 이야기와 의미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10명의 아버지를 개별적으로 2회씩 만날 때 마다 2~3시간 동안 구조·비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범주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들 아버지에게 발견된 그들의 경험은 첫째, 아동의 인터넷 사용을 용인하는 아버지 둘째, 인터넷에 아동 양육을 맡긴 아버지 셋째, 아동에게 인터넷보다 못한 아버지 넷째, 인터넷에 아동보다 더 중독된 아버지이다.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인터넷 중독 아동의 아버지와 그들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바람직한 행동방식을 제시하였으며 후속연구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 주제어 : 인터넷 중독 아동, 인터넷 중독 아동의 아버지, 부-자녀관계, 질적 연구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전북대학교 연구중점교수 선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박사과정수료. lila3006@hanmail.net

*** 교신저자 :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yyh3838@jbnu.ac.kr

I. 서론

IMF 이후 아버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점이 달라졌다. 그동안 강력한 가부장제는 가정 내에서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의 소유자인 아버지의 가정에서의 역할 부재에 대해 용인해왔던 일반적인 인식이 점차 변화를 겪으며 오히려 가정 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동시에 아버지에게 가정 내 역할을 주자는 주장이 동시 다발적으로 강하게 이어졌다. 이는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소가족화 됨에 따라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바뀌고 부모 자녀관계에서도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아버지는 자식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경제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가족들의 존경심을 유지하고 가정 내 절대적인 권력을 질 수 있었지만 (루이지조야, 2009) 현대는 생계부양자로서 아버지가 구축해왔던 강력한 가부장제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아버지 위기는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역할, 그리고 아버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시각을 제시한다.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투자, 애착, 자원제공은 모두 아이의 사회능력 인지발달 안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Amato & Rivera, 1999). 또 아버지들은 아이의 감정 조절과 통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Gottman, 1997) 함께 사는 아버지나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 모두, 단순히 접촉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아버지들이 사춘기 때 아이들의 생활에 함께 할 때 애착이 더 강해지고 더 바람직한 교육, 행동, 정서적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Furstenberg & Harris, 1998).

특히 인터넷에 중독된 아동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해, 관심, 정보제공, 조언 등의 사회적 지지를 인터넷을 강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낮게 지각하고 있다(김정민, 2013). 이는 가정에서의 아버지가 아동을 이해하고 칭찬을 자주해주면서 인터넷에 좋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올바르게 건전한 사용방법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이나 정보화 사회 진입에 대한 언급이 새삼스레 불필요할 만큼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IT강국이 되었다. 아동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쳐 10대의 99.9%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한국인터넷 진흥원, 2012). 스마트폰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발달은 아동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학습, 소통, 오락, 쇼핑의 도구로 사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창출하는 때

체로도 일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인터넷 정보망을 개인별 요구에 따라 주문 형으로 구축하는 ‘커스터마이즈(Customize)’시대 도래에 의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터넷 발전은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심각하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확산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아동의 중독률은 성인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즉 10~49세 스마트폰 사용자 1만6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중독률은 11.1%로 지난해 2011년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청소년기인 10~19세의 경우 지난 2011년 11.4%였던 스마트폰 중독률이 2012년엔 7%가 늘어난 18.4%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아울러 전 연령에서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아졌다는 점도 주지할 사실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아동기의 심리적 특징은 자기 통제력의 미숙, 감각적 행동, 사회 내에서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 충동적 성향 등이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특징에 따른 욕구를 인터넷 공간에서 해결함으로써 중독증으로 나아가게 되며 특히 대부분 익명성인 사이버 공간에서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현실과 사이버공간을 동일시함으로써 왜곡된 자아를 형성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김현수, 2012). 즉, 아동기의 인터넷 중독의 요인은 첫째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기 스스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둘째 현재의 자아 외에 왜곡된 자아를 만들어 또래집단 내에서 일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각각 현실에서 만족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쉽게 중독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 아동의 ‘인터넷 중독’은 현실세계 즉 가족과 사회의 냉담한 자세로 아동들이 고립감을 느끼면 인터넷 공간에서 더욱 강한 정서적 지지를 얻어 억압된 감정과 감추고 있는 모습을 더욱 쉽게 펼칠 수 있어 중독으로 더 쉽게 나아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부모로부터 심리적 거부나, 무관심에 의한 좌절 혹은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아동들은 더욱 인터넷에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재홍, 2004).

한국 청소년 상담원 인터넷 중독 대응 팀(2012)은 아동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는 체험 놀이나 축구 등 체육 실외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 재미를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중 아동과 지속적인 실외활동을 하는 데는 어머니 보다는 아버지가 더욱 적합하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해 인터넷 중독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넷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는 아동들에게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의 사회성과 바람직한 관계형성에 영향을 더 미친다는(박정원, 2003)점을 바탕으로 현대가

정의 가족연구 중 최대 관심사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고 한편으로는 아동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가정 내에서 아버지 모습에 대한 반성과 반추로 아버지 행동 지침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휴대전화 메신저로 시비가 붙은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만나 흥기를 사용하고 (KBS, 2013. 9.25 보도) 이성 친구를 구한다는 초등여학생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는 소위 '사이버 연애'가 확산되어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등(연합뉴스, 2013.2.11 보도)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이 아동의 개인적인 삶의 차원을 넘어 사망사고 및 범죄발생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 중독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 경험 연구는 바람직한 아버지행동 지침을 제시,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함과 동시에 아동의 사회성과 관계형성을 위한 아버지 프로그램 개발에 더 많은 관점과 자료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자는 질적 연구를 통해 인터넷 중독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 경험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접근과 의미 부여로 인터넷 중독 아동을 돕는 아버지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중독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II. 연구방법

1. 질적 연구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중독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의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질적 연구로 접근을 하였다. 이는 첫째, 인터넷 중독 아동을 둔 아버지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터넷 중독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의 경험에 대한 객관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보다는 아버지들의 주관적인 의미와 그들의 의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 판단을 받은 아동들의 아버지이다. 총 10명의 아버지들의 자녀는 지난 2011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일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이용 전수조사’에서 인터넷 중독 ‘위험군’ 판정을 받은 군산시내 모 초등학교 학생 18명 중 연구자의 연구에 참여의 뜻을 밝힌 대상학생의 아버지 10명이다. 질적 연구가 갖는 타당성, 유의미성, 그리고 통찰력은 연구 참여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연구 참여자가 얼마나 적합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연구자가 이를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Patton(1990)의 주장에 따라 본 연구자는 10명의 연구 참여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했던 인터넷 이용 전수 조사에서는 검사지 K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지난 2003년도에 국내 인터넷 이용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프로그램’이다. K척도는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그 하위요소로 일상생활 장애(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현실구분 장애(disturbance of reality testing), 긍정적 기대 (addictive automatic thought), 금단(withdrawal), 내성 (tolerance),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virtu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일탈행동(deviate behavior)등 모두 7가지로 설정해 만들어진 40개 문항의 질문을 담고 있다

이들의 자녀 10명은 K척도의 기준점인 전체총점 94점 이상, 일상생활 장애 요인총점 21점 이상, 금단 요인 총점 16점 이상, 내성 요인 총점 15점 이상에 해당되며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이며 내성 및 금단 현상이 나타나며, 비도덕적 행위와 막연한 긍정적 기대가 있고, 현실 생활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듯 착각을 하기도 한다. 초등학교생인 이들의 접속시간은 약 3시간 이상이고, 대개 자신의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며, 학업에 곤란을 겪는다. 또한 심리적 불안정감 및 대인관계 곤란, 우울한 기분 등이 흔하며, 성격적으로 자기조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며 무계획적인 충동성도 높은 편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성별은 남학생 7명, 여학생 3명으로 모두 4학년들이다. 이들 아버지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표1>과 같다.

<표 1> 아버지의 일반적인 특징

성명	연령	학력	직업	자녀특징 (성별/가족순위/성적)	가족과의 동거 여부와 이유	컴퓨터 활용정도 상/중/하
아동1의 父	40	고졸	자영업	여/외동이/중위권	동거	상
아동2의 父	39	전문대졸	회사원	남/2남중둘째/하위	별거/이혼	하
아동3의 父	41	고졸	회사원	여/1남1녀 중 둘째/하위	별거/ 이혼	하

아동4의 父	38	전문졸	전문직	남/2남 중 첫째/상위	동거	중
아동5의 父	41	중졸	일용직	남/2남 중 첫째/중위	별거/직장관계	하
아동6의 父	42	대졸	회사원	남/1남1녀 중 첫째/하위	동거	중
아동7의 父	39	전문대졸	자영업	남/1남2녀 중 둘째/하위	별거/직업상	상
아동8의 父	38	대졸	자영업	남/4남중셋째/하위	별거/직장관계	중
아동9의 父	44	고졸	회사원	남/외동이/중위	동거/	하
아동10의 父	42	대졸	회사원	여/1남1녀 중 첫째/하위	동거	상

3. 자료 수집 방법

인터넷 중독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주된 자료수집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직장과 일상에 바쁜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커피숍이나 직장 휴게실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한 아버지 당 2번의 만남을 가졌으며 1회당 2시간30분에서 3시간을 소요하였다. 처음에 연구자가 아버지들을 만나려 할 때는 부정적이거나 의아심을 가지던 것을 ‘내 자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나러 가기 전 2·3차례의 전화 통화로 ‘리포’ 형성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호기심과 흥미, 무엇보다 내 아이를 도울 수 있단 생각으로 솔직하고 최선을 다한 대화를 하였다. 연구자는 첫 만남에서는 각각의 아버지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대상별로 비구조화 된 대화를 하였으며 두 번째 만남에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1. 자녀가 인터넷을 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 자녀의 스마트 폰을 포함한 인터넷 사용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3. 아이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게임이 아니라면 어떤 활동을 가장 즐겨하는지요? 웹 쇼핑인지, 채팅인지, SNS 활동인지 아십니까? 4. 아이와 놀이 하는 시간은 주단위로 얼마나 되는지요? 등 10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하였다. 연구자는 아버지들의 표정과 언어에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 경청으로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표현에서도 의미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들이 했던 대답들이 제대로 전사되었는지 보여주어 일일이 허락을 구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등에게는 연구 참여의 감사 의미로 조그마한 마음을 선물을 드렸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상에 대한 개인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주어진 인간 의식 속의 구체적인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는 데 유의미한 접근 방식인 현상학적 분석으

로 접근하였다. 자료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접근에서 Cresswell(1998)이 제안한 자료수집 방식에 입각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즉 1단계는 면담자료를 분류하고 면접당시 녹음한 자료를 모두 축어록으로 작성하였다. 2단계는 아버지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모든 자료를 정독하여 공통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디어를 획득했다. 3단계는 코딩을 통해 의미단위를 찾아내었고, 유사한 의미단위들을 묶어서 하위범주로, 다시 하위범주를 묶어서 통합하는 범주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4단계로 연구자는 이런 범주화속에서 의미구조를 파악하는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5단계로 연구자는 범주화와 주제 분석을 통해 주제를 발견하였으며 6단계로 연구결과에서는 범주화 분석결과를 생략하고 주제들을 중심으로 현상을 기술하였다.

또한 전사된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님과 역시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동료와 함께 밀도 있는 토론을 거치면서 해석을 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아버지들이 진술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아버지들이 그들의 자녀와의 일상의 경험들에 대한 맥락들, 면접에서 보이는 아버지의 언어적인 메시지를 통합 분석하여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해석하였다.

5. 질적 연구에 따른 윤리적 문제

질적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로는 연구에 대해 밝히기, 자발적 참여, 고지된 동의, 연구 참여로 인한 피해, 또는 보상, 비밀보장 등이 있다.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동의를 받았다. 특히 연구자가 아닌 이상 본 연구에 제시된 정보들만으로는 연구 참여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어렵도록 사적인 정보를 최소화 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면접으로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발견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즉, 축어록→의미단위→하위범주→범주→주제의 순환적 분석단계를 실행한 뒤, 분석과정과 결과는 생략하고 분석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제시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이들 아버지에게 발견된 그들의 경험은 첫째, 아동의 인터넷 사용을 용인하

는 아버지 둘째, 인터넷에 아동 양육을 맡긴 아버지 셋째, 아동에겐 인터넷보다 못한 아버지 넷째, 인터넷에 아동보다 더 중독된 아버지 등이다. 이 주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아동의 인터넷 사용을 용인하는 아버지

아이가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통 알 수 없어요. /제가 컴퓨터를 공부할 시간이 없고 잘 배우지 못한 점도 있고 웬지 내가 잘 모르는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더 그렇고.../ 아이가 커가면서 컴맹인 나를 웬지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컴퓨터와 관련해서 잔소리를 참는 편이죠. <아동5의 아버지>

우리 집에 컴퓨터나 핸드폰 등을 사면 우리 아들이 다 설명을 해 줍니다./ 물론 설명서를 읽으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귀찮고 업무도 많아서 피곤하니 아들이 설명해 주면 편하더라고요. /아들 녀석은 이상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잘 알더라고요/ 컴퓨터를 오래할 때 '꺼' 라고 하면 학교숙제라고 해서 사실 아들한테 항상 지기 마련입니다.<아동9의 아버지>

저보다는 우리 아이가 모든 면에서 나아요./ 수학도 잘하고 공부도 썩 잘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믿기 때문에 인터넷을 하더라도 아이가 판단해서 모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편입니다. <아동8의 아버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접하여 왔다. 그 무렵에 태어난 아이들은 상시 접속시대에 살면서 언제 어디서든 장소와 시간제한 없이 인터넷을 즐기며 자라왔고 최근에는 10대 초등생까지도 스마트폰을 95%이상 소지하며 모바일 인터넷을 즐기는 전형적인 모바일 네이티브¹⁾ 세대로 자라왔다. 위의 사례에서 보면 아동이 인터넷을 필두로 한 뉴미디어 기술에 대한 경험은 아동과 부모세대의 문화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아버지로 하여금 컴퓨터 사용에 대한 강력한 금지를 시키기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인터

1) 모바일 네이티브란 초고속인터넷이 본격 보급되고 카메라 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 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30대를 지칭한다. 모바일 기기와 언어를 마치 특정 언어를 쓰는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면에서 '모바일 네이티브'로 부른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따로 배우지 않고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 사회 및 산업의 변동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네이티브는 그러나 텍스트 중심의 책보다 동영상, 이미지가 친숙하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지적된다(출처:Don Tapscott-Growing up digital).

넷 게임문화나 컴퓨터 활용 내용에 대해 무지한 아버지일수록 아동의 도움을 얻어야 되므로 아동은 일찍부터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이를 바라보는 아버지들은 자식의 인터넷 사용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하며 새로운 그들만의 문화에 난감해하고 자신이 가장으로서 아이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할 위치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내가 없고 아이들과 저만 있을 때였어요./ 자장면을 만드는데 4학년밖에 안 된 딸아이가 뛰든 적적 하는 거예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검색했다면서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딸아이는 공부도 못하는데 인터넷 게임은 자기반에서 제일 잘 한 다네요./ 모르지만 그것으로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아이가 컴퓨터를 좀 많이 쓰더라도 제재를 못하겠어요.
 <아동3의 아버지>

지난번에 컴퓨터를 해서 그만 끄라고 했더니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 길래 소리를 버럭 질렀는데/ 알고 보니 그게 무엇이냐 전자책을 봤다는 것이었죠/ 그 뒤부터는 아이가 컴퓨터로 나도 모르는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되네요.
 <아동4의 아버지>

제가 따로 이메일을 안 쓰고 있어요. 밖에서 하역 일을 하다 보니 별로 쓸 일도 없고요./ 그것 들어가서 메일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끔 친구들이 사진 등을 보낸다고 메일주소를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아이 이메일 주소를 물어보게 되지요./ 제 것을 만 들어봤자 1년에 한두 번 밖에 안 쓰니까요./ 언젠가 술 마시다가 친구가 체육대회 때 사진을 보낸다고 해서 친구를 딸아이와 통화하게 해서 사진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어쩌나 불만스런 표현을 하던지 민망하긴 하던데요.
 <아동10의 아버지>

지난번에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핸드폰 게임만 한다고 내 동생은 아이들은 혼내던데/ 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사실은 대화가 오직 할아버지나 어른들 위주니 아이들이 낄 데가 없잖아요./ 심심해 하니 난 핸드폰 가지고 노는 것이 웬지 이해가 가고 오히려 이것이라도 있어 다행이다 싶던데요./
 <아동6의 아버지>

아동들에게 스마트폰을 비롯한 mp4 노트북등 스마트 미디어는 단순한 통화기능이나 음악을 듣는 정도의 기기가 아니다. 아동들은 그러한 단순한 기능들은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기능 중의 하나의 부가적인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요즘 십대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조차도 검색에 의존하는 세대이다. 부모님에게 꾸중 들었을 때의 대처 방법부터 시작하여 음식

을 만드는 레시피 까지 아동들은 무엇이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부모들이 컴퓨터를 시간을 내어서 배워야 하는 것과 달리 아동들은 배우지 않아도 스마트 미디어를 능숙 능란 하게 다룰 수 있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 가장으로서 가장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버지 직업이 전문직·사무직 일 때 보다 판매직·생산직에서 일을 할 경우 컴퓨터와 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매일 빠르게 변하는 새로운 컴퓨터 관련 지식 습득이 아동의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경우 아동이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았다(양명숙, 조은주, 2011). 그럴 경우 컴퓨터 관련 지식이나 활용능력이 자식들보다 부족한 아버지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컴퓨터 사용시간에 대한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다가 아동을 인터넷 중독자로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경험을 호소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 스마트 미디어 사용에서 나타난 인터넷 중독률은 부모가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또 사용시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더욱 높아졌다(서울시 통계, 2013).

2. 인터넷에 아동 양육을 맡긴 아버지

저는 항상 지쳐서 집에 오면 바로 잠을 잡니다./ 애들 엄마는 내가 집에 오면 아이들에게 조용히 시키고 있나 봐요./ 어느 날 잠을 자다 집안의 하도 조용 하 길래 나와 봤더니 지들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게임하고 있고 딸애도 자기방서 채팅하고 있습니다./

<아동3의 아버지>

밤에 대리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낮에 자고 밤에 나가요./ 아들을 사랑하지만 자주 얼굴 마주칠 날이 없어요./ 제 직장이 이렇기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그렇다고 돈 걱정 없는 것도 아닌데 약순환입니다./낮 시간 동안 아이는 학원에 다니지 않아 한가해서 그러니 컴퓨터로 놀고 있네요.

<아동9의 아버지>

아들 녀석이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해서 모처럼 한가한 토요일이라 그러자 했어요./아 그런데 하루 전에 작성한 부동산 계약서가 이상하다며 이것저것 확인하러 계약자가 왔더라고요./ 그 틈을 타 아들은 내 사무실 컴퓨터에 게임을 다운로드받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모든 부동산 계약서의 내용을 직접 현장까지 가서 확인시키고 고객을 이렇게 저렇게 설득하다 보니 장장 6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저녁이 다 될 때까지 자전거는커녕 맛난 것 하나를 못 사주고 집에 왔네요./그 시간 동안 아들 녀석은 컴퓨터하고 시간을 보낸 셈이죠.

<아동2의 아버지>

지금의 초등학교 아동들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IMF라는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태어났거나 그 무렵 유아기를 보내며 자란 아동들이다. 부모들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에 나서야 할 때 부모의 관심영역에서 멀어진 대신 상대적으로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자식 한사람을 교육시키려면 1인당 1억2천만원이 필요하다는 통계 (서울 강남구 사회조사 보고서 2011, 재인용)를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잘 들어난다.

일 때문에 주말부부로 산 지 10년이 됐어요./ 주말에 집에 오면 그렇게 안하려고 해도 애들이나 아내의 행동이 맘에 안 들더라고요./ 힘들게 일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어질러져 있고/ 아들은 저랑 친하지도 않아서 자기 방에서 게임만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귀찮아서 잠만 자다 옵니다.
 <아동7의 아버지>

아내도 맞벌이를 하니 둘 다 바빠서 아들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심심하니 게임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혼 낼 수도 없어요. 안쓰러워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울 떡)/
 <아동9의 아버지>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직장과 바깥일로 바쁜 아버지는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 못한다. 인터넷 중독 아동의 아버지는 늘 자신이 바쁘며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바쁜 아버지가 집안에서 휴식을 취 할 수 있도록 조용히 자기 방에서 지낼 수 있는 컴퓨터 인터넷 게임을 선택한다. 게임을 하거나 메신저나 사이월드, 최근에는 카카오톡,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하며 외로움을 달랜다. 아버지와 바깥놀이는 포기한 채 아동은 몇 시간씩 컴퓨터와 게임을 즐기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이들과 잘 놀아줄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사람관계의 폭을 넓이며 자신에게 받지 못한 관심을 게임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아동들의 양육을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인터넷 환경 아래로 아동들의 양육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3. 아동에게 인터넷보다 못한 아버지

1) 오랜만에 만난 어색한 아버지

오랜만에 내가 집에 가면 왠지 분위기가 어색하게 흘러요./ 애들은 나한테 말을 잘 안 해

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짜증이 나고 매사 화가 나더라고요./ 애들은 온종일 게임만 하죠./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아동8의 아버지>

아이가 주말에 컴퓨터만 해요./ 주중엔 못하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 하기로 했다고 해서 처음엔 그렇게 하자 허락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아빠인 제가 집에 가는데도 아이는 저한테는 관심도 없이 게임만해요./ 애가 그러니 같이 외출할 생각도 없어지고 소리만 지르게 됩니다.
<아동7의 아버지>

이혼한 후에 제 어머니, 즉 애들 할머니가 집안 살림을 하는데/ 할머니를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PC방만 다닌다고 해서 제가 몇 대 때렸습시다. 그랬더니 애가 내가 오기만 하면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어디서 뭘 하는지 12시 가깝게 들어와서 물어보면 PC 방에서 게임하다 왔다고 하고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동5의 아버지>

과거의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친구들과 만남을 통해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같이 뛰어 놀면서 사람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감정변화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태도를 결정했다. 놀이는 아동들의 충동 조절이나 상황에 따른 태도변화를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경험의 공간이자 놀이터였다. 그러나 지금의 아동들의 놀이문화는 인터넷이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친구들과 문자로만 대화한다. 기계적 문자는 상대의 감정선을 읽고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느끼며 그에 반응하여 나의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법을 경험 할 수 가 없다. 그런 아동들의 특징을 잘 모르는 아버지는 아동들에게 알 수 없는 화를 내는 것이다. 아동들은 그런 아버지가 왜 화를 내는지 알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런 어색하고 공감미 안 되는 상황을 더욱더 컴퓨터 게임이나 또래와의 채팅으로 마음을 달래려 한 것이다.

종교 활동을 하는 아내는 늘 바쁩니다. 솔직히 애를 방치 할 때가 많아요./ 딸아이는 눈치만 슬슬 살피며 기가 죽어 있어요. /제가 화를 낼 때마다 그 애는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더 많이 혼납니다. / <아동1의 아버지>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서 대접 못 받고 애들은 많고 앞날이 불안한데./ 아이들이 내가 봐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고개 박고 아는 척도 안하면 정말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왜 인사도 안하냐고 소리 지르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마지못해 인사하고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내 존재가 한없이 비참해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아동7의 아버지>

저 클 때 저는 아무것도 없이 공부 했어도 잘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한테 갖은 투자를 다하고 버는 족족 애한테 씁니다./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지났는데도 노후대책은커녕 암 보험 하나 들지 못했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라지만 텔레비전 하나 저는 제대로 못 봅니다. /인터넷 중독 아들 두니 부부싸움도 잦아지네요./ 서로의 교육방식도 비난하게 되고요./

<아동4의 아버지>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는 고생하며 일하는 보람도 없이 자녀가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여 자신을 본체만체 하거나 성적이 하위권인 것이 몹시 속이 상한다. 아내와의 교육관도 틀려 자주 다투기도 한다. Allen 과 Hawkins(1999)가 정의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어머니가 본인을 가정일과 양육의 매니저로 여기고 아버지를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여길 경우 문지기 경향성이 짙는데 이때 아내는 남편에게 아동의 교육 및 생활태도에 대한 잔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편인 아버지는 화를 내도 정당성이나 가장으로서의 ‘화’의 진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줄 가족이 없는 셈이다. 다시 말해 남편에게 양육참여를 위해 협력적인 동의를 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후회와 같은 양가성을 갖는다(Allen & Hawkins, 1999)어머니는 이에 따라 오히려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동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여 말함으로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소한 일상에서의 결과는 부부와 혹은 부-자녀의 대화 단절을 가져와 아동의 컴퓨터 이용시간을 줄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2)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

술 마시고 오는 날이면 아내랑 많이 싸우게 됩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죽기만큼 싫는데 계속 잔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이런 상황을 무척 무서워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들 방에서 헤드폰 끼고 큰소리로 인터넷 게임을 한다고 하네요.

<아동7의 아버지>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있다 보니 항상 우울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요./ 엄마 대신 할머니가 계시지만 연로하신 분이 아이들과 매번 싸우기만 하고요./소통이 힘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제가 아이들을 타이르다가 자주 손찌검을 합니다. /매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굳은 결심을 합니다만, 결국 또 그렇게 하게 되네요./ 아들은 제가 화가 났다 싶으면 집을 나가버려요. /밤 12시가 넘어야 들어오는데/ 주로 PC방에 있다가 온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으면 다시 손찌검을 하게 되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애들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동3의 아버지>

인터뷰 중 총 10명의 아버지 중 7명이 매일 술을 마신 상태였거나 술을 마시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 주었다고 고백한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중독 아동의 아버지는 술을 자주 마시며 술에 의존을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술과 관련하여 부부싸움이나 고성 잔소리 음주운전 등 아버지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개별적으로 마신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술을 마시고 들어 온 아버지와 마주치기 싫어서 자기 방에 앉아 게임에 몰두하거나 인터넷을 한다는 사실을 아버지들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깨닫고 스스로도 놀라워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어머니와의 다툼 등의 불안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의 방에 숨어서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 등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잠시 잊어버린 채 심취해 버리는 것이다.

매일 술을 먹게 됩니다. 업무가 그러기도 하지만 술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일찍 오는 날엔 웬지 서운해서 집에서도 종종 술을 찾게 되고요. / 좀 취기가 올랐다 싶어야 기분이 안정감을 갖습니다. / 그때 전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내 말은 아이들은 술 마신 아빠완 애들이 대화하기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이미 애들은 자기들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심한 일이지요.
<아동4의 아버지>

술을 마시고 매일 늦게 오다 보니 어떤 땐 일찍 오는 날엔 집에 저녁거리도 없을 때가 있어요./ 아내는 귀찮아서 그런지 다이어트 한다고 그런지 매번 아이들과 일찍 저녁을 먹는 날이 많습니다./일을 끝내고 집에 오는 시간은 다른 가족들은 저녁을 다 먹고 각자의 일을 즐깁니다./제가 돌아와도 본 척 만 척이지요./ 아이들에게 말이 걸라치면 아이들은 컴퓨터에 얼굴을 박고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6의 아버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요./ 전 처가 죽겠다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 했는데도 술을 마시면 버릇이 되네요./ 그것이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제가 화풀이를 애들한테 했나 싶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결국 또 아이들한테만 피해가 갔습니다./아이들은 저한테 혼나고 나면 게임으로 화풀이를 한다고 하는데...

<아동2의 아버지 >

가족체계론 입장에서는 가족체계는 모든 부분이 상호 의존적이고 성원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가족체계에서는 가족 한 구성원이 잘못되거나 심한 음주 등과

같은 불건전한 요소를 가지고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향상성의 추구하고 유지를 위해 역기능적인 역할을 적응하고 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이혼, 별거, 유기, 가출, 만성질환, 낮은 자존감, 불안, 우울, 미성숙, 충동성의 성격적 문제 등 공통적 문제를 가진다 (장수미, 1992)는 연구는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등이 인터넷 중독을 앓고 있는 아동들의 공통점이라는 사실로 보아 아버지의 음주는 아동들에게 좀 깊이 인터넷 바다로 빠져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연구에서는 우울증을 겪는 아동의 14.5%, 가벼운 우울증은 7.9%, 정상인 아동은 3%가 인터넷 중독률을 나타냈다. 또 불안의 경우 매우 심한 불안증을 가진 아동 20%, 심한불안 13.3%, 가벼운 불안 7.1%가 인터넷 중독률을 보였다(서울시통계, 2013).

4. 인터넷에 아동보다 더 중독된 아버지

저 역시도 게임을 좋아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땐 제가 아이에게 인터넷 게임을 가르쳤을 정도입니다./ 저는 아들과 친구처럼 인터넷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하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안에서 언제든 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은 자주 하는데 축구들의 바깥 놀이는 자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게임을 하다 순간적으로 빠지면 몇 시간씩 그냥 흘러 보내죠. /그땐 전 아빠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게임에 몰두한 것 같습니다.
<아동 9의 아버지>

아이가 어렸을 때 재미삼아 PC방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죠./ 집사람이 집에서 컴퓨터만 하지 말고 아이 데리고 바깥놀이 좀 하라고 해서 데리고 나왔다가 아주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아이가 무척 좋아했어요. /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 없이도 PC방을 자연스럽게 다니는 아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권위적이기만 했던 내 아버지와는 달리 난 내 아이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아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기분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잘못 됐는지...
<아동1의 아버지>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아동의 아버지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아동들과 같은 인터넷 게임을 즐기며 아이들을 허용적으로 이해해 주다 자제력을 상실한 아버지들이다. 심지어는 아동이랑 같이 12시간 이상 같이 게임을 한 아버지도 있었고 자신 역시 게임을 즐겨 거의 중독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아버지들은 아직 초등학교생인 아동이 신체적 심리적 미숙으로 인해 성인에 비해 인터넷 게임에 의한 부작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장미경, 이은경, 2007)는 사실을 간과한 채 아동들에게 무분별적인 행

동을 하기도 했다. 자신의 가슴속에 환상처럼 가지고 있는 ‘친구 같은 아버지’ 이고 싶었으나 잘못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권위가 서지 않는 아버지로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직장일로 다른 지역에서 있다 보면 가족이 많이 보고 싶기도 합니다. / 그런데 온라인 게임은 아들이랑 같이 접속해서 같이 게임을 하면 왠지 같이 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가 먼저 게임을 시작하여 아들에게 들어오라고 한 적이 있는데.../드래프트 게임 요.../ 아들에게 아이템도 주시고 레벨도 올려주면 그것보다 아들이 신나 할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들은 항상 게임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학원 갈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모범을 보이지 못한 탓 같아요. <아동7의 아버지>

어쩌다 집에 있던 날 아이 방 컴퓨터로 솔직히 ‘야동’을 본적이 있는데.../사이트를 삭제 안했다가 아들이 들어가서 보게 된 적이 있어요./이 녀석이 아직 4학년인데도 가끔 성적인용어나 여학생을 놀려 선생님께 지적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또 위에 형들이 3명이나 있다 보니 야동을 통달했다고 떠벌리고 다닌다 해서 참 난처합니다. /담임선생님한테도 민망하고./ <아동8의 아버지>

저는 친구들 보다는 컴퓨터와 노는 것이 좋고, 또 외출해서 사람들과 마주치기 보다는 인터넷쇼핑을 더 좋아합니다./조속하고 성숙한 딸아이는 저랑 성격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 아이의 행동도 이해되는 부분도 많고요./아빠인 저는 아이 엄마 몰래 제 카드를 빌려주곤 했습니다./ 인터넷서점에서 동화책을 산다고 하 길래 돈을 주었더니 밤새워 인터넷쇼핑을 해서 옷을 사 버렸어요./옷을 산 것은 좋은데 옷을 고른다고 몇 날 몇 칠 을 인터넷 쇼핑만 한 거예요./ <아동10의 아버지>

이번 인터넷 중독 아동들의 아버지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아동1, 아동7, 아동10의 아버지처럼 컴퓨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나머지 아버지들처럼 컴퓨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이용이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 이다. 아동의 아버지들이 성장해온 시대는 요즘의 상시접속시대가 아니며 컴퓨터 등 스마트기기가 일반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동의 아버지들은 그들의 가정환경과 관심에 따라 컴퓨터의 활용능력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아동의 인터넷사용을 용인하는 아버지와 달리 아동보다 인터넷에 더 많이 중독된 아버지들은 1970년대 태어난 대부분이 N세대들이다. 이 말은 미국의 Don Tapscott이라는 학자가 Growing up digital 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그에 따르면, N세대는 70년대에 태어나 성장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컴퓨터 문화에 길들여진 세

대를 뜻한다. 즉, N세대는 어린 시절을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게임, CD-ROM, 인터넷 등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다. 즉 아동들의 아버지도 어린 시절부터 일상적인 삶의 무대는 바로 네트워크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들 못지않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이버 공간에 익숙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직적 권위를 거부하고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수평적인 관계망을 무한대로 펼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나름의 독립적인 세계를 갖고자 한다. 즉,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삶을 거부하고 평균과 평준화를 거부한다. 대신에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중시하고 있다. 그들은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는 길이 신세대의 놀이를 같이하며 시대를 앞서 나가면 되는 것으로 믿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서로 같이 살지 않는 아버지가 인터넷 게임에 아들을 초대했다가 결국에는 학원도 가지 않고 게임을 즐기는 아이로 만들었는가 하면 야한동영상 사이트주소를 아들이 알게 되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언어를 사용케 한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게도 하였다.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바른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를 흉내만 낸 아버지라고 자신을 후회 하고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중독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 경험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아버지 행동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연구자는 인터넷 중독 아동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현상을 경험한 아버지들의 주관적인 의미구조를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접근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중독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 10명과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범주화 분석과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발견된 아버지 경험으로는 첫째, 아동의 인터넷 사용을 용인하는 아버지 둘째, 인터넷에 아동 양육을 맡긴 아버지 셋째, 아동에겐 인터넷보다 못한 아버지 넷째, 인터넷에 아동보다 더 중독된 아버지 등이다. 이러한 결과들에 근거하여 인터넷 중독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의 인터넷 사용을 용인하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컴퓨터 지식이 없음에서 출발한다. 아버지 스스로가 아동을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의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판단할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문제해

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이정순, 조희숙, 2005)는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선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늘려야 한다. 요즘의 아동들은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로 주로 문자나 SNS로 소통한다. 실시간 검색을 선호하며 동영상 문화에 익숙하다. 이러한 아동들의 특징을 아버지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실세계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겐 인터넷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나 도피처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부모로부터 심리적 거부나 무관심에 의해 고립감을 느끼게 되면 아동은 억압된 감정을 펼칠 수 있는 가상의 세계인 인터넷 공간으로 더욱 더 쉽게 빠져 든다(안석, 2000; 장재홍, 2004). 한 인터넷사이트의 회원 6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52퍼센트가 부모와의 하루 대화 시간은 10분 이내라고 응답했다.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가운데 20퍼센트가 하루 중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1분도 채 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또래 집단 간의 의사소통에는 익숙하지만 가정에서의 대화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게다가 부모와의 대화 내용도 ‘밥 먹었어요, 다녀왔습니다.’ 등 일상적인 질문과 답변이 70퍼센트가 넘었고, 고민 상담은 9퍼센트에 불과해 대화의 질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당연히 짧은 시간의 의례적인 대화만으로는 서로 교감할 수가 없다. 아버지들이 인터넷이란 뉴 미디어로 무장한 자신들의 아이를 인터넷 사용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인터넷 중독에 쉽게 노출시키는 결과를 나타낸다. 반대로 가정 내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관여할 경우 자녀의 사회성과 대인관계 향상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아버지가 인터넷과 컴퓨터 관련 지식을 쌓고 자녀와의 소통과 대화의 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는 소규모 ‘아버지 컴퓨터 학교’를 각 동네별로 상시 운영 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들로 하여금 가상세계의 인간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거나 혹은 아버지로부터 심리적 거부를 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기위한 ‘아버지교육’은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에 아동 양육을 맡긴 아버지’는 바쁜 아버지가 자신을 대신하여 인터넷 접속을 통해 아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방치하고 아동은 그 속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주거나 놀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아버지는 현실 속에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오는데 힘든 나머지 집에서는 무기력해지기 일쑤다. 바쁜 아버지에게는 아이와의 놀이가 항상 뒷전이다. 스마트 미디어는 바쁜 아버지를 대신 언제 어디서든 아동들의 욕구를 채우고 관계의 결핍을 채우는 도구가 되면서 아버지의 설 자리는 더욱더 좁아지고 있다. 특히 맞벌이 시대를 맞이하여 부모 모두가 경제적 가치에 지향점을 두고 가정을 이끌다 보면 아동인 자녀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학습부진이나 또래관계의

실패, 우울증 등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 아동들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그 자체만으로는 심각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의 누적 경험은 매우 심각한 부적응을 야기 시키고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주지 해 볼 필요가 있다(Kanner et al. 1981). 바쁘고 힘들어서 나랑 놀아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자녀들의 생각은 결국 나를 기르는데 힘든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고 이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피하기 위해 더욱 더 인터넷으로 다가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홍승아 (2012)는 현대의 아버지는 아내에게 가정 일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미안함, 직장 일에 충력을 기우리지 못한다는 불안감등으로 자녀양육에 아내가 하루에 쓰는 111.9분보다 절반수준인 56.3분을 사용하면서도 양육스트레스는 아내보다 더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보고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떨어져 직장생활을 하는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등 가족 관련 휴가가 자연스럽게 직장에서 용인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정책 마련도 중요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 중독 아동에게 있어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 바깥놀이와 축구 등의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잘 놀아 줄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아버지는 자녀의 사회성과 바람직한 관계형성에 어머니보다 영향을 더 미친다는(박정원, 2003)점을 고려할 때 바쁜 아버지의 스케줄이 아이를 위한 시간 안배는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동에게는 인터넷보다 못한 아버지’에서는 가족 간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인식되어지는 가족 정체성과 친밀감 부재를 알 수 있다. 특히 직장 관계나 가정의 문제로 아동과 별거형태로 살고 있는 아버지인 경우 아동은 가족이라는 이름하의 대인관계에 많은 적응적 요구를 겪게 되어 한 집안에서 자주 아버지를 만나는 아동보다 다양한 관계스트레스를 직면하게 된다(신효미, 유미숙, 조유진, 2007 재인용). 이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우울증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개인 내적인 요인들은 더욱 인터넷에 몰두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박진아, 정문자, 2001). 아버지의 온정이나 애정 관심 등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아 존중감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0)과 안정애착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또한 Aronfreed(1964)에 따르면 부모의 애정 철회나 권력에 의한 처벌이 자녀의 죄책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Ferguson과 Stegg(1995)는 아동의 죄책감은 부모의 훈육방식이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부모의 분노경험 정도와 관련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화를 잘 내는 아버지는 아동들에게 하여금 죄책감을 들게 하고 이는 우울과 사회성 결여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중독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 자신에게도 화나 분노 조절의 필요성도 있다. 화가 나면 화를 참기 보다는 화를 극복 할 수 있어야 한다.

음주행위로 인한 아버지의 행동에 아동들은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일상생활을 같이

하여야 하는 가족들은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반감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권위에 대들기도 한다. 이미 아버지는 아동들을 훈계하거나 통제 할 수 없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의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다. 아이들은 이러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보며 그들도 같이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혼돈을 경험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넷째, ‘인터넷에 아동보다 더 중독된 아버지’는 자녀와 인터넷 게임을 하며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게임을 즐기는 아버지는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부정적 역할을 미치고 있다. 아동이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나 캐릭터 살해가 가능한 게임, 사이버 머니와 아이템이 현금화 될 수 있는 게임을 할 경우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미성숙으로 인해 성인보다 강한 중독성을 보인다(장미경, 이은경, 2007). 그것은 게임이 아니라 도박임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야한 동영상의 시청은 아동의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아동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의 용도를 정확히 지도해야 할 것이다. 시간을 정해놓고 게임을 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아동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매일 정해진 시간에 게임을 허락하기 보다는 하루라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보상을 주는 것이 스스로 게임을 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권수영, 2013).

최근 아동들의 게임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학교과제나 공부, 건전한 가족놀이문화부재, 돈벌이에 지친 아버지가 무관심의 보상으로 사주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는 꼭 인터넷 중독이 아동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기도 힘들다. 단순히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같이 하는 것만으로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아이들에겐 너무 빠르게 성인문화를 접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노턴 온라인 패밀리 조사보고서(2011)에 따르면 아동의 62%가 인터넷 환경의 부정적 경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정에서 일정한 인터넷 사용 규칙을 적용할 경우 그 위험성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한다.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아동들에게 미디어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치며 바깥놀이의 재미를 알리는 역할은 결국 아버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 인터넷 중독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경험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물론 인터넷 사업을 장려하고 IT정보화 강국을 국가경쟁력강화사업인 우리사회가 오히려 인터넷 게임을 부추인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관련기관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바람직한 인터넷이용 수업을 받

게 하고 이를 열심히 실천하는 학생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주는 등의 극약처방이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인터넷 중독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경험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다만 한 지역 초등학교의 인터넷 중독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 1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이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심층면접에 참여한 인터넷 중독 아동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험 연구로 볼 때 이들 현상을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로 인터넷 중독 아동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는 치유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바람직한 아버지의 행동이 인터넷 중독 아동들의 중독 개선과 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밝혀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버지교육의 한 부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 문헌

- 권재환(2008). 국내 인터넷 중독 연구동향. **청소년학연구**, 15(3), 137-157.
- [기선민기자의 가정만세] 직장·가사·육아 ... 안쓰러운 '2030 슈퍼 맨 아빠'(2007. 5. 9). **중앙일보**. p.24.
- 김승욱, 김혜수, 이경옥(2007). 아동용 인터넷게임 중독 척도 개발. **한국아동학회지**, 28(6), 37-52.
- 김영희, 김신정(2008). 한국형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위한 학령전기 아동 아버지의 양육태도. **아동간호학회지**, 18(3), 379-390.
- 놀이터는 컴퓨터 내 친구는 게임기. (2008. 5. 2). **문화일보**. p.45
- 로스, D. 파크(2012)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 서울: 샘터
- 루이지 조야(2009). 아버지란 무엇인가? 서울: 르네상스
- 방희정, 조아미(2003).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1), 1-22.
- 서울시통계(2013). 통계로 보는 서울시. 서울: 통계청
- 성원경, 김양은, 이춘자(2012).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 8(4), 33-51.
- 신경선, 유미숙, 조유진(2007).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8(6), 233-247.
- 안석(2000).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미애, 오윤자(2005). 아버지-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초등학생을 중심

- 으로. **아동교육**, 14(1), 115-129.
- 이영환(2001).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과 유아의 애착 안정성의 발달적 결과: 단기 종단적 연구, **한국 아동학회지**, 22(2), 65-76.
- 이영환, 이화숙 (2013). 인터넷 중독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자녀’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1), 127-148.
- 이해명(2009). 자녀성공의 Key는 아버지가 쥐고 있다. 서울: **예담**
- 전나리, 조복희(2012). 기혼 남성의 추가 출산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보육지원 학회**, 8(1), 125-143.
- 장미경, 이은경(2007).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 요구와 부모관련 변인이 게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19(4), 1125-1138.
- 장재홍(2004).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인터넷 사용욕구를 매개로, **상담학연구**, 5(1), 45-60.
- 좋은 아빠의 육아 딜레마. (2008. 5. 2). **한겨레** 21. 통권 916호. p.6
- 최나야, 한유진(2006). 충동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인터넷게임에 대한 기대가 아동, 청소년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209-219.
- 황정해(2003). 자녀발달단계에 따른 남성의 부성연구 경험.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통계정보 검색시스템. <http://isis.kisa.or.kr/>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http://www.iapc.or.kr/>
- Amato, P. R., Fernando, R. (1999). Paternal Involvemen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2), 375-384.
- Bell, M. A., Berry, J. L. van Rookel, J. L., (2004). Internet and personal computing fads. *New York: Haworth Press*.
- Choi, Y. J. (2001). Investigating Koreans internet use patterns and motivations, and exploring vulnerability of internet dependency.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Interdepartmental Program In Linguistics*.
- EBS <아버지의 성> 제작팀(2012). **아버지의 성**. 서울: 베가박스
- EBS <아이의 사생활> 제작팀(2009) **아이의 사생활**. 서울: 지식채널
- EBS <엄마도 모르는 우리아이의 정서지능 > 제작팀(2012) **아이의 정서지능**. 서울: 지식채널
- Gebauer, J., Ferenc, D., Kranich, D., Lorenz, E., Merck, M., Mirzoian, R., (2004). Evaluation of a new high QE photomultiplier for air Cherenkov telescopes. *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A*, 518, Issues 1 - 2, 1, 615 - 618.
- Greenfield, D. (1999).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mpulsive Internet Use: A Preliminary Analysis. *CyberPsychology & Behavior*, 2(5), 403-412.

- Goldberg, I. (1995). Internet addiction disorder(IAD). Retrieved November 24, 2004.
http://www.webs.ulpgc.es/aeps/JR/Documentos/ciberadictos.doc
- Gurland, S. T., Grolnick, W. S. (2003). Children's Expectancies and Perceptions of Adults: Effects on Rapport. *Child development* 74(4), 1212-1224
-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 of two model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1-39.
- Norton Online Family Report(2011), *http://www.symantec.com*
- Skinner, B. F., Hayes, J. (1976), Walden two. *New York: Macmillan.*
- Stocker, C. M. (1999). Marital Conflict and Parental Hostility: Links With Children's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4), 598-609.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John Wiley & Son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age perceived by fathers of children with Internet addiction.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we conducted depth interviews with ten fathers of children with Internet addiction who had been diagnosed as At-Risk through a face to face meeting. The reason for choosing face to face interviews was to listen to the subjective stories and descriptions from fathers about the kind of fathers they are, which are felt and experienced in real life. More specifically, we selected the depth-interview methods through structured questions and non-structured questions. The interviews were held for two or three hours through an individual meeting of ten fathers and data were collected in order to conduct a categorical analysis. The figures discovered from fathers of children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he father figure who is indifferent to the Internet use of his child, the father figure depending only on education through the Internet, the father figure who is in a weaker point than the Internet and the father figure who is addicted to the Internet. Based on the study results, we suggested the desirable behaviors, which may be useful for both fathers and children with Internet addiction as well as a follow-up study.

▶*Key Words* : *children with internet addiction, father of children with internet addiction, father-child relationship, qualitative study*

논문투고	2013. 08. 16.
수정원고접수	2013. 10. 08.
최종게재결정	2013. 10. 23.